

메디앙스 이론의 고찰을 통한 근대성에 내재하는 장소적 문제로서 추상성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es Incurring Abstractness as Placeness problem Innate in Modernity through the Review of Mediance Theory

박용서*
Park, Yong-Seo

Abstract

The trend of abstract expressions has become one of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problems relating to a sense of place in modern architecture. This trend began in earnest after the era of modernism, caused by the effect of modern dualism. Before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modern trend of abstract expressions and sense of place, a fundamental review of the establishment of human environments is necessary. In this context, this study deals with the principles of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based on the logic of projec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milieu, through the concept of mediance by Augustin Berque, and based on this, causes of adverse effects on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s in modernism were verified. In addition, the last section covers the conceptual supplements required in order for the concept of mediance to become practical, overcoming its limitation of being simply theoretical. Through this analysis on the concept of mediance, it is realized that a genuine sense of place can be achieved only when architecture moves beyond the individual dimension as a simply physical object, and instead plays a role as a socially sustainable community, embracing the people and unique objects therein.

Keywords : mediance, milieu, placeness, modern dualism, metabasism, abstractness

주요어 : 메디앙스, 주변환경, 장소성, 모던 이원론, 주제전이주의, 추상성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건축에서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다양한 지역적 특색이 소멸되어가는 현상이다. 이것은 건축물과 그것들로 구성된 우리의 주변 환경이 무미건조한 물리적 객체로서의 성향을 점진적으로 증대시켜감으로서 고유한 장소성은 그만큼 쇠퇴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다. 기존에는 특정 장소의 거주자들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던 건축과 환경이 현대에 들어서면서 어디에나 존재하는 유사한 스타일들로 대체되었는데 그러한 대표적 현상으로서 건물의 추상적 경향을 들 수 있다. 건축에 있어서 추상적 존립 방식은 모더니즘 건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현상 안에는 근대성(modernity)의 논리가 근대건축의 형성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소적 문제와 관련한 추상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에 대

한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근대적 환경 구축에 있어서 모더니원론의 논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추상성을 발생시키는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한다. 두 번째,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모던 이원론과 추상성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적 역기능이 무엇인지도 출해 본다. 세 번째는, 모더니원론과 추상성이 환경 구축 원리의 본질적 측면과의 비교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건축에 있어서 추상성에 의해 파생된 장소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간과 관계한 환경 구축의 요소들 사이의 복합적 작용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에 입각한 인간적 환경 구축 원리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간과 환경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관계성을 다루고 있는 오귀스탱 베르크(Augustin Berque)의 메디앙스(Mediance) 개념의 이론적 고찰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한다. 명확한 논리적 전개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틀을 크게 인간과 사물 사이의 상호관계와 주변 환경과 인간 존재와의 상호관계로 나

*정희원(주저자,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이 논문은 2009학년도 경북대학교 신입교수정착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누어서 구성하도록 한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도 연속적인 상관관계의 틀 속에 놓여 있는 가운데 투사(trajection)라는 일관된 모티브 내에서 제시 및 검증을 진행시키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사물의 구축에 대한 고찰 단계에서는 인류 발생적 진화에 대한 실증적 해석의 관점에서 인간의 신체와 의식 그리고 사물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하여 인간적 사물의 본질적 특성은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여기서는 앙드레 르로아-그루안(André Leroi-Gourhan)의 논리의 수정 및 보완을 통한 사물과 의식 사이의 투사(trajection) 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건축을 포함한 인간의 주변환경(milieu)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이렇게 도출된 주변환경과 인간 존재 사이의 상관관계를 종합적으로 정의하여 본다. 여기서는 하이데거 존재론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메디앙스의 개념적 정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한다.

모더니즘과 추상성의 문제와 관련한 연구로서는, 이러한 메디앙스 개념에 대한 환경 구축 측면에서 고찰을 바탕으로 모더니즘의 이원론적 논리에서 이러한 환경 구축 원리에 위배되는 개념적 요소들을 도출해 보도록 한다. 아울러 이러한 모던 이원론에서의 환경 구축의 역기능적 개념들이 주제전이주의를 발생시키는 과정과 그것의 영향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로 추상성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하여도 분석하도록 한다.

II. 서술 현상에 내재하는 투사(trajection) 작용

인류는 대지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만의 고유한 세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인류의 직립 능력은 저 멀리 지평선상에 대지와 하늘이 맞닿고 있는 형상의 감지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점이 대지를 인간 세계로의 서술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적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호리존탈리타트 개념(concept of *Horizontalität*)’을 통하여 이것을 보다 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세계와 대지는 결코 분리되지는 않으나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다. 세계는 대지위에 세워지고 대지는 세계를 통하여 밀려든다.”¹⁾

이러한 내용을 대지에서 세계로의 서술(predication from earth to the world)로 정의 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서술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파악을 앙드레 르로아-그루안(André Leroi-Gourhan)의 ‘사회적 신체’(social body)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한다. 그는 인간에 의하여 구축되는 그들의 환경 이라는 것을 ‘동물적 신체’(animal body)로부터

1) Martin Heidegger (1962), *Chemins qui ne mènent nulle part*, Paris: Gallimard. 62.

터 ‘외재화’(externalization, 外在化) 된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외재화를 다시 인류화(Anthrophization)와 인문화(Humanization)의 두 단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로서 ‘인류화’는 인간에 의해서 그들의 환경에 대하여 물리적인 변형(physical transformation)을 가져오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물리적 변형을 통한 인류화의 과정을 거친 환경이 의미론적 변형(semantic transformation)을 일으키는 ‘인문화’의 단계가 그것들인데 이러한 인류화와 인문화는 서로 상대방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가운데 각각의 단계는 서로 상이한 체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고 있다; 전자는 기술적 체계(technical system)에 기반하고 있으며 후자는 상징적 체계(symbolic system)에 기반 한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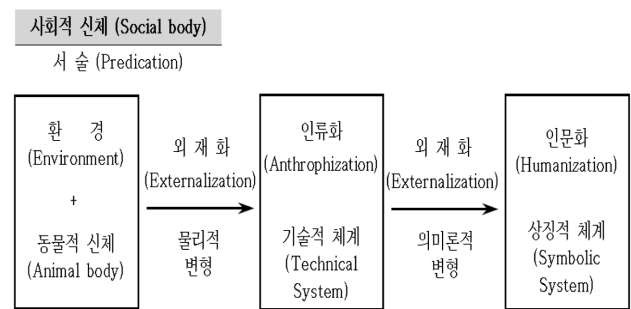


그림 1. 르로아-그루안의 사회적 신체(social body)의 개념도(박용서, 2010)

우리는 그의 사회적 신체의 개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외재성’이란 용어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의 설명을 인용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사회적 신체란 인간이 자신의 동물적 신체를 기능적으로 외재화시켜 인간 세계화(서술화)된 사물의 시스템으로서 그들 바깥에 기술적인 동시에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다.”²⁾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인간 신체로부터 외재화’라는 것이 개체로 분리된 질료적 대상물들(material objects)로의 외형적 물질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스템 구축 능력에 의한 ‘기능적 시스템’(functional system)의 외재화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 또한 사회적 신체로서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서로의 물리적 구성품⁴⁾의 국지적 정의를 초월하는 비가시적인 성격의 것을 의미하려는 의도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2) André Leroi-Gourhan (1964), *La Geste et la parole*, 2 vols, Paris: Albin Michel.

3) 인간의 이러한 시스템 구축 능력이 인간과 동물들을 근본적으로 구분시킨다. 즉, 동물들에 있어서는 시스템 구축능력이 없으므로 인하여 그들이 비록 몸에 소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총합의 능력을 통하여 새둥지나 벌집과 같은 확장적 표현형(phenotype)을 구축할 수 있거나, 원숭이등과 같이 도구로서 특정한 대상물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이 도구를 생산하여 간직할 수 없는 것이다. Cf. Augustin Berque (2005). *The ontological structure of Mediance as a ground of meaning in architecture*. 97.

해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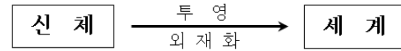
프로아-구르안에 의하면 인간은 이러한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인 시스템’으로서 외재화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인간 자신의 신체를 환경으로의 투영(projection)시켜 세계로의 서술 작용을 수행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외재화의 메커니즘에 의한 사물의 구축에서 주목할 점은 그것이 인간과 필연적으로 묶여진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의 의식과 신체 활동이 능동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인간과 그들의 사물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인간이 환경을 구축해 나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의 의식과 신체의 필요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바깥에 주어질 주변 환경을 제어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축된 사물은 인간의 의식과 신체의 능동적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서 인간 존재와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상호 긴밀한 연속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인간에게 본연적으로 존재하는 외향적 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존재’(existence)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에 담겨있는 철학적 의미와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즉, 존재라는 것은 단지 그의 육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바깥’(out, ex)에 굳건하게 ‘서있음’(standing, *sistere*)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신체의 외재화 작용은 인간 존재에 내재하는 외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인간과 그에 의해 구축된 사물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상호 연결된 것으로서 이 둘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될 수 없는 일체적인 것이다. 프로아-구르안의 ‘사회적 신체’의 개념에 내재하는 존재의 외향적 성향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스스로밖으로 끌어내는-존재’(being outside of oneself/*ausser-sich-sein*), 또는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인류학적 서술’(anthropological predicates)의 개념의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하지만 프로아-구르안의 외재성의 논리가 인간과 사물의 존재론적 연결 관계의 관점을 유도해 내고 있더라도, 우리는 그의 논리에서 한 가지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베르크가 지적하고 있듯이, 기술적 체계에 의한 인류화와 상징적 체계에 의한 인문화의 진화의 과정이 외재성의 프로세스에 의해서만 의지하여 순차적이고 일방향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징적 체계는 오히려 기술적 체계와 반대로 외재화가 아니라 내면화의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외재적 현상이 기술적 체계의 속성임은 의심할 바 없지만 상징적 체계의 속성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기술적 체계는 분명히 인간 신체 바깥의 실제(presence)와 관계하여 벌어지는 투영(projection) 작용인데 반하여 상징적 체계는 멀리 떨어져있는 어떤 사물의 존재를 우리의 신체

로 소환시키는 재현(representation)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 의식 속으로 내면화(internalization)를 수행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그림 2>.

· 기술적 체계 (실제)



· 상징적 체계 (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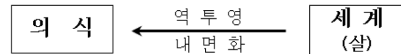


그림 2. 프로아-구르안의 기술적 체계와 상징적 체계 각각의 작용 관계(박용서, 2010)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현실에서 인문화의 진행은 프로아-구르안의 논리처럼 인류화의 중간 과정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발전되는 일직선상의 순차적 프로세스를 밟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행위에 의해 기술적 체계와 상징적 체계가 외향성과 내향성의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교차되면서 즉각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보완적 작용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기술들(techniques)은 우리의 신체(body/*sóma*)를 세계(*Kosmos*)로서 환경 속으로 투영(project)시키며, 상징들(symbols)은 세계(*Kosmos*)를 우리의 신체 속으로 존재의 ‘살’(flesh/*chair*)⁵⁾로서 역투영(retroject) 시킨다. 여기서는 이러한 투영/역투영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묶어서 투사(trajection)로 정의하도록 한다.

투사의 논리에서 내향성과 외향성의 복합적인 작용은 현실에서 사물들(things)과 의식(consciousness)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베르크의 설명을 통하여 그러한 구체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외재화와 내면화 이들 각각의 특성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그 둘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외재화와 관련하여서, 기술적 체계의 속성으로서 투영(projection) 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은 의미를 간직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서 물질(matter)은 삶(life)을 서술/포함(predicate/subsume)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삶이 마음(mind)을 서술/포함(predicate/subsume)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서 그 반대 방향으로의 서술 작용은 불

5) 몸은 가시적(可視的)인 자연적인 것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가시적(不可視的)인 역사에 가시적인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몸은 “안과 밖 사이에 성립되는 등가의 체계로서, 안팎이 서로서로 일방이 타방 속에 성취되도록 지시하고 있다.” 몸은 말하자면 서로 다른 가장자리 영역들을 하나로 합치고 있는 통합선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모든 통합선은 이중적이다. 이런 통합선의 철학을 메를로-뽕띠는 <살의 철학>(une philosophie de la chair)이라고 불렀고, 이 살의 철학이 회화의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살의 철학은 세계의 논리학의 이면이다. Cf 김형호(1996). 메를로 뽕띠와 에메성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 196.

4) 우리의 동물적 신체와 마찬가지로 원시적 도구로 사용하였던 자갈이나 현대의 로봇 등을 의미한다.

가능하다.⁶⁾ 즉, 생각(마음)이라는 것은 신체에 의해 서술되는 것으로서 결국 생각(마음/mind)은 신체를 매개로 하여 구축된 환경이라는 형식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물과 의미 사이의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성은 다음과 같은 기호학적 측면의 정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사물에는 기호가 내재하고 있으며 의미는 기호 안에 물리적으로 현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적 체계 하에서 기호는 사물에 관한 ‘의미의 방향량’(vector of meaning)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상징적 체계의 속성으로서 내향성에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기술적 체계의 외재화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인간 상징체계(human symbolic system) 내에서는 의미는 물리적인 형식으로 현존이 불가능한 것이다. 사물과 재현의 물리적 단절로 인하여, 여기서 서술은 생체기호학(biosemiotics)에서처럼 생각이 신체에 의해서 서술되고 그것을 통해 환경에 의해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신체를 서술하여 개별자(person)로 만들고, 그것이 환경(environment)을 인간의 주변 환경(human milieu)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서로 상반된 방향성과 특성을 가지는 기술적인 체계들과 상징적인 아이콘들(symbolic icons) 이들 각각은 서로가 주체의 입장에 서서 상대편을 슬부로 설정하는 성향을 보인다. 즉, 어느 방향(우리의 신체에서 세계의 방향)에서 주체로 작용한 것은 다른 방향(세계에서 신체로)에서는 슬부로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세계를 유추하여 우리의 신체를 형성하고 그 역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체를 유추하여 세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성-세계성의 투영/역투영 작용에 의한 투사적 관계성(trajective relationship)은 사물이 우리를 위해 간직하고 있는 의미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사물들은 우리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체로 충만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으며, 또한 주관적인 재현만도 아니다. 사물들은 투사적인 것이며 그러함으로서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문화 인류학적 유산들에는 이러한 투사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근대 이후의 인간적 환경 구축 현상에서는 자아(human subjectiveness)⁷⁾의 관념론을 바탕으로 하는 순전한 상징적 투영(symbolical projection)이 환경위에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모더니즘의 관념론적 상징적 투영은 환경과 인간사이의 밀접한 연결 관계를 형성하는 두 가지 논리, 프로아-그루안의 외재성과 베르크의 투사성, 그 둘 중 어

는 한부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물들(things)과 마음(mind) 간의 순전히 환영적인 연결을 초래하는 기호의 임의성(무작위성/arbitrariness)을 수반하며, 동시에 기호의 의미(meaning of sign)를 우리의 ‘존재의 삶’로부터 분리시킨다.

이와 같은 상징적 투영에 의한 분리주의적 현상의 근원적인 원인은 모던 이원론(modern dualism)의 사상적 논리로부터 기인한다. 그것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 출발하여 데카르트의 코기토(Cogito)로 이어져 내려오는 현실 세계에서 유리된 이상향(Idea)의 수직적인 위계 구조-즉, 감각적 현실 세계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 모델(초월적이고 관념적인 원형)로서 절대적 존재의 설정-의 개념에 기반을 두어 발전되어왔다.⁸⁾ 이렇듯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출발점으로 하여, 근대성은 마음과 신체와 사물을 근본적으로 단절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물들은 그것이 소유하고 있는 적절한 의미가 결여된 채로 각각의 분리된 오브제들로서 존재의 바깥에 무심하게 서 있을 뿐이다. 즉, 사물들은 그 자체만의 적절한 의미의 표출이 결여된 상황 하에서, ‘기호의 지시적 의미’(signification, the work of sign)는 결국 떠돌아다니는 기표(signifier)들의 순수한 유희로 그치고 마는 것이다.

인간적 환경 구축이라는 것이 프로아-그루안이 주장과 같은 인간 신체성의 확장에 따른 외재적 변형은 진화론적 입장에서 다양한 현상 속에서 사물의 계보화를 통한 그 원형(archetype)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지만 여기에는 원형만을 참조하려는 경향에 치우침으로 인하여 물리적 요소의 범주론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인다. 그리하여 이것은 결국 물질이 삶과 의식을 번역할 수 없는 논리적 딜레마에 사로잡히게 된다. 또한 사물은 모던 이원론의 영향 하에서와 같이 그것 자체만으로 완결된 독자적인 오브제(autonomic objet)만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사물은 투사의 논리와 같이 의식과 사물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생성시키고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므로 사물 자체의 자가규정성의 논리(self-determinism)에 의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가규정의 논리는 모더니즘에서 볼 수 있듯이 오브제로서 사물 내의 독자성을 형성하는 자기 참조적 논리를 일정 부분 담고 있음으로 인하여 대상은 주체로부터 분리됨으로서 존재론적인 추상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III. 메디앙스(Mediance) 개념과 근대성 비판

지금까지 분석에서 현실에서 사물은 의식과의 상호 투사 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전적으

6) 생체물리학(biophysics)은 의미(meaning)와 기호(sign: 의미의 방향량, vector of meaning)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공존적임을 입증하였고 생체기호학(biosemiotics)의 탄생에 기여하였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체가 물리적 구축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신체는 가장 정제된 사고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기에 이른다. Cf. Augustin Berque (2005). *Op. cit.* 98.

7) 마음, 자아(自我), 주관성을 의미하는 단어인 subjectiveness (subjectivité)와 주체성을 의미하는 subjecthood(sujecité) 두 단어 사이의 용어적 구분에 유의한다. 괄호 안은 프랑스어 표기.

8) 지상의 현실을 이상적 세계에 못 미치는 감각적이고 열등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데아의 형식을 표방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수직적 위계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내용이 일방적인 투영 현상으로서 플라톤의 형이상학의 영향으로 존재하고 있다.

로 객관적이거나 또는 주관적인 것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인간과 건축과 환경사이의 관계로 확장시켜 분석을 진행 해보도록 한다. 투사적 구조는 어떻게 조직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베르크는 ‘미디어스’의 개념에서 이러한 사물과 의식의 투사의 개념을 인간 존재와 환경 사이의 관계로 확장적 해석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본래 와츠히 테츠로(Watsuji Tetsurō)의 풍토성(風土性, *fudōsei*)의 개념에서 차용된 것으로서 그는 ‘인간 존재의 구조적인 계기’(the structure moment of human existence)로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인간 존재는 그의 개별적인 부분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성되고, 이러한 가운데 이들 사이에는 기계역학에서 한 순간을 형성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디어스와 풍토성의 개념에는 두 가지의 힘들처럼 역학적 상관관계가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이중성의 구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하이데거 현존재(*dasein*) 개념과 르로아-그루안의 ‘사회적 신체’의 논리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와츠히는 이것을 ‘풍토’(風土, *fudō*)로 정의하고 있으며, 베르크에 의하여 ‘매개적 신체’(medial body)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것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술적이고 상징적인 체계들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생산되고 사용되고 전달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들은 분명히 사회적이다. 하지만 사실상 그것들은 계속해서 사회뿐만 아니라 환경을 포함하는 하나의 ‘주변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술적인 체계들은 물질적으로 환경을 변형시키는 반면, 상징적인 체계들은 그것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체계들은 환경과 분리되어 질 수 없다. 그것들은 환경에 부여된 것이며,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주변 환경으로 만들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사회적 신체는 기술적이고 상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생태적인 시스템인 것이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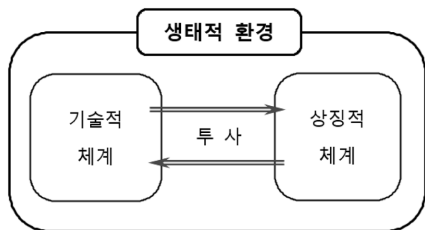


그림 3. 베르크의 매개적 신체 다이어그램 (박용서, 2010)

9) Augustin Berque (2000), *Écumène: introduction à l'étude des milieux humains*. Paris: Belin. 94-99.

10) milieu: 사전적 의미로는 주위, (사회적)환경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주변환경’이라고 번역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생태적이고 자연적인 환경(natural environment)과 구별되는 용어이다. 또한, ‘주변환경’(milieu)은 환경(environnement, 環境)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풍토와 같은) 구체적 관념들로부터 추상화 되는 방식에 의해 자연과학 안에서 그러한 것으로 설정되는 하나의 대상적이고 범주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측면의 개념과 구별되는 것이다. Cf. Augustin Berque. 김수철 (역), (2006). *생명사상과 지구적 살림 운동; 죽음을 향한 존재, 생을 향한 존재, 그리고 지구*. 2-3.

이러한 맥락에서 풍토/매개적 신체는 ‘주변환경’(milieu)이라는 용어로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¹⁰⁾<그림 3>

또한, 이러한 풍토(風土, *fudō*), 매개적 신체(medial body), 주변환경(milieu)은 인간 존재의 개별자적 측면과의 ‘계기’(契機)적 조합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을 ‘풍토성’, ‘미디어스’(mediance)로 정의한다.¹¹⁾ 여기서 ‘계기적 조합’이란 기계역학에서 파생된 독일 철학의 ‘모멘트’(moment)라는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서, ‘두 개의 상반된 힘이 하나로 조합되며 운동을 이끌어 내는 것’과 같은 작동 원리를 뜻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우리는 미디어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존재의 반은 우리의 동물적 신체 안에 함께 있고, 반면에 존재의 나머지 반은 -인간의 주변환경, 즉 매개적 신체를 구성하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으로 또는 환경으로부터 투사되는 것이다.”¹²⁾<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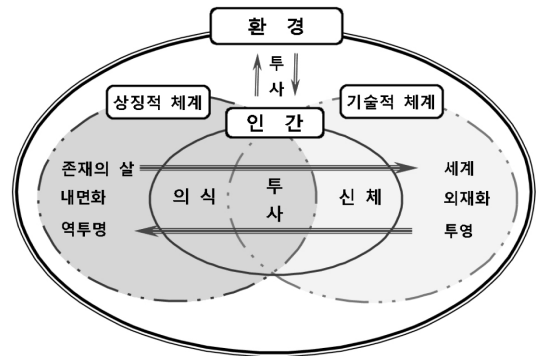


그림 4. 베르크의 미디어스 개념의 다이어그램적 표현(박용서, 2010)

이러한 와츠히의 존재에 있어서 ‘이중구조’ 개념에서는 모던 이원론을 필두로 대두되고 있는 존재와 사물과의 단절적 현상으로 말미암은 존재의 ‘추상성’(abstractness)의 문제와의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러한 추상적 경향의 문제를 다시 데카르트의 존재론적 영향의 측면과 하이데거의 개별자적 존재 개념에 내재하는 존재의 추상성에 의한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로, 모던이원론에 내재하는 추상적 경향의 문제를 하이데거의 데카르트 존재론 비판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근대성은 데카르트적 연장(*extensio*, 사물들의 확장)의 개념에 의해 주변 환경(매개적 신체)을 인간 존재 바깥에 대상들의 질료로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현대 개인들은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지니고 있는 매개적인 신체를 저 바깥 환경 속에나 있는 단순한 대상으로 서술함으로써 자신들의 의식을 외무로부터

11) *Ibid.* 3. ‘풍토성’(fudosei)을 ‘매개성’(mediance)이라고 번역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매개성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주변환경 “milieu”을 뜻하는 어근인 -med에서 파생된 신조어로, 보다 정확하게는 라틴어에서 “절반 half”을 뜻하는 *medietas*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단어는 인간 현존재의 구조적인 계기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인 부분과 매개적인 부분들인 인간의 두 가지 “절반들halves”을 표현해 준다.
12) Augustin Berque (2000). *Op. cit.* 94-99.

닫아버린다. 이러한 외폐(外閉, forclusion)의 방식으로 현대 이원론은 우리의 매개적인 신체를 외부적이고 독립적인 대상으로 변화시키고,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의 토대를 전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회적이면서 또한 환경적인 주변환경 속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추게 된다는 사실이다.¹³⁾

하이데거에 있어서 ‘현존재’(dasein)란 ‘영역’(*gegend*)을 구성하는 사물들과 함께 친밀하게 관계되어 있는 바로 우리들 자신의 존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고전적인 주체(데카르트의 자아, the Cartesian je, or I)와같이 스스로 닫혀 있는 것이 아닌 ‘세계-내-존재’(in-der-Welt-sein)이고, ‘스스로-밖으로 끌어내는-존재’(ausser-sich-sein/being out side of oneself), ‘더불어-있음’(mitsein) 등의 표현들과 같이 인간 현존재가 존재론적으로 주변의 사물들과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물들의 입장에서도 위의 논리는 동일하게 성립하고 있다. 즉, 사물들 또한 주체에 대립되는 대상들이 아닌 것으로서, 사물들은 주어진 영역(*gegend*)의 구제성 안에서 현존재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데카르트의 연장(*extensio*, 사물들의 확장)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대상들의 질료로 축소되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하이데거의 관점은 대상으로 구성된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개별주체의 근대적인 시각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¹⁴⁾

두 번째는, 와츠키에 의해 비판되고 있는 하이데거의 존재 개념에 있어서 추상적 경향의 문제이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이 달성한 모더니원론의 존재론적 한계의 극복에도 불구하고 그의 현존재(*dasein*) 개념에는 여전히 추상의 흔적이 잔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존재 개념이 시간성에만 국한되는 양상을 보임으로서 이러한 개념은 개별자적 관점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러한 것은 개인의 죽음과 함께 존재적 현상이 멈추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¹⁵⁾ 이러한 이유에서 하이데거의 현존재는 오직 개별적인 인간의 존재일 뿐인 것으로 존재의 본질적인 두 가지 측면들 -인간의 개별자적인 측면과 그의 사회적인 측면들- 중의 단지 하나에 속할 뿐이고, 나머지 부분인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부분들로부터 분리됨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추상화 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13) 외폐하다(Forclure, 外閉)의 어원은 라틴어 *foris*(바깥)과 *cludere*(닫다, 잠그다)에서 나온 용어. 외폐(Forclusion)는 우리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 의식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폐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들의 기원은 주요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토포스(*topos*, 장소)에 대한 정의와 성 바오로의 우리들 각자가 절대자(신)와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Cf. Augustin Berque. 김수철 (역), (2006). *Op. cit.* 1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Augustin Berque(2000). *Op. cit.* 134-139.

14) Augustin Berque. 김수철 (역), (2006). *Op. cit.* 3-4.

15) 하이데거의 존재론의 주된 개념서인 <존재와 시간>(Being and Time)에서 ‘현존재’를 ‘죽음을 향한 존재’로 전재로 함으로써 주체는 시간성에 국한되는 성격을 보이고 있다.

와츠키는 이러한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죽음과 함께 멈추지 않고 ‘인간 사이’에 관계하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요소로서 ‘매개적 신체’를 도입함으로써 존재성을 공간적 차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즉, 인간이 매개적 신체를 필연적으로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는 시간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개별자적 현존재가 사회적 측면의 공간성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형성하였을 때 비로소 존재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으며 이러한 개념을 풍토성(*fudósé/mediance*)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츠키의 개념에서도 여전히 설명될 수 없는 한 가지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은 와츠키의 정의가 비록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논리적 불완전성은 그의 논리적 틀 내에서는 이러한 ‘바깥’(외향성)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자체적 규명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베르크는 이러한 존재론적 논리상의 불완전성의 보완하기 위하여 인류 발생적 진화에 대한 실증적 해석의 관점을 도입하고 있다. 즉, 그는 르로와-그루안의 외재성에서 와츠키의 논리가 찾고 있는 ‘바깥’의 근원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것이다. 이러한 베르크의 해법에는 르로와-그루안의 인류 진화론적 관점에 입각한 서술 구조에 존재하는 논리적 오류를 동시에 수정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상징적 시스템에 내재하는 논리가 외향성이 아니라 내향성임을 입증함으로써 인간과 환경사이에 작용하는 서술현상은 전적으로 투영에 의한 외재화 작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물과 의식 사이의 내향성과 외향성 사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이루는 투사적 관계(*trajective relationship*)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투사의 논리에 내재되어 있는 진화론적 입장의 실증적 현실성과 존재론적 입장의 관념적 비실체성이 공존하는 구도에 의하여 현실이라는 것은 주체(인간)와 객체(환경) 쌍방 간에 등가적 균형 상태를 지향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인간은 포유류다’라고 하는 단하나의 명제만으로는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그 외에도 인간을 설명하는 다양한 측면의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기술-상징적 신체를 소유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에 가능한 것으로서 이로부터 차원 높은 개연성의 개입을 유도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¹⁶⁾ 즉, 그것은 사물의 실체(*the reality of things*)를 한 방향이나 다른 방

16) 이러한 수준 높은 개연성이 인간의 역사와 자연의 역사를 구분시키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인간 주체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연의 역사는 생태계(*biosphere*)에 근거하고 인류의 역사는 자연의 그것과 차별된 에쿠멘(*ecumene*)과 관련한다. 에쿠멘이란 인간의 모든 주변 환경(*human milieu*)의 총체적 조합(*total combin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구와 인류의 존재-지리적 연관 관계이다. Cf. Augustin Berque (2005). *Op. cit.* 99-100.

향으로 의존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 짓는 주체(distinctive feature)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의식의 발로를 가능하게 하는 명백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이 사물들의 실체가 완전한 하나의 서술로 축소 환원되지 않고 다층적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여, 현실(Reality)은 실제와 비실제적인 측면 두 부분의 조합인 것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 번째로, 현실은 전적으로 실질적이지만은 않은 것이다. 현실에서 사물들의 실체(subject)/사물들의 술어(predicate)의 서술관계는 인간의 의식작용의 우발적 경향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표출 된다. 이러한 의식작용을 거침으로서 서술은 은유(metaphor)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술어의 은유적 논리’(the metaphoric logic of the predicate)라고 정의한다. 두 번째로, 현실은 인간의 주관에 의한 단순한 서술, 즉 은유의 범주에만 전적으로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사물의 실체에는 완전히 하나의 서술로 축소 환원 될 수 없는 그 자체의 물리체로서의 현상이 일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사물 A는 A가 아닌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서 이것을 ‘주체의 동일성의 논리’(the logic of the identity of the subject)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현실은 투사(trajection) 작용으로 인한 위의 두 가지 논리 ‘주체의 동일성의 논리’(the logic of the identity of the subject) 그리고 ‘술어의 은유적 논리’(the metaphoric logic of the predicate)- 이 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실에서 사물들이라는 것을 ‘의식의 재귀적 반향성(reflection)을 포함하여 인간의 실존에 의해 서술되는 실체’라고 정의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물들의 투사적인 현실(trajective reality)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세계의 서술성(predicativity)에 다름 아니며 다음과 같은 확장적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메디앙스에 의하여 사물들의 실체(S/Earth)는 이러한 사물들의 술어들(P/World)로 투사된다. 그리고 현실은 정확하게 실체(S)와 술어(P) 사이의 투사적인 관계인데, 여기에서 전자는 환경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고, 후자는 우리의 신체 내면에 (예를 들어 우리 뇌 속의 이미지들이나 개념들로) 존재하는 것이거나 혹은 그 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Reality)은 세계(World)로 받아들여진 지구(Earth)이다: 현실(R)=실체(S)/술어(P)”¹⁷⁾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현실 그 자체(r=S/P)로서 매개성은 필연적으로 그들 각각의 주체(hupokeimené)와 관련된 토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하이데거는 이와 같은 내용을 슈트레이트(Streit)라는 용어로 다음과 정의하고

있다; “대지(Earth)는 그 것의 세계(world)로의 순전한 서술 안에 주체(hupokeimené)로 남아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대지는 세계에 토대를 제공해주는 것이다.”¹⁸⁾ 그것은 기호를 포함하는 가운데 서술에 의미를 제공하여주는데, 특히 대지에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건축의 경우에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근대적 이원론은 위에서 살펴본 메디앙스의 개념과는 정반대로 외폐(forclusion)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의 매개적인 신체를 외부적이고 독립적인 대상으로 변화시키고,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의 토대를 전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사물들의 실체(S/Earth)는 사물들의 술어들(P/World)과의 분리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그로인하여 대상은 주체와 대립되며 점차 추상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와 대상의 대립적 양상은 플라톤의 형이상학과 기독교사상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데카르트의 근대적 주체인 코기토(Cogito)의 개념적 형성에도 관계한다. 코기토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의 축약어로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관념 세계에 속하는 자아에 의해서 혼돈스럽고 현상적인 대상으로 존재하는 열등한 현실 세계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이다.¹⁹⁾ 이러한 이분법의 영향으로 대상은 주체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하여 사물은 존재성을 함양하지 못하는 추상적 경향을 보인다고 하이데거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간 주체와 사물의 실체 사이의 존재론적 단절 현상이 주체전이 주의(metabasis)의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추상화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체 동일성의 논리’로서 사물은 그 자체일 뿐이지 그 이외 다른 무엇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논리이다. 이 또한 모던 이원론의 주된 원천들 중에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물이 순수한 토포스(topos) 만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의 정의에 의하면 사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토포스란 ‘외피의 부동적이며 즉각적인 경계’를 의미한다.²⁰⁾ 이러한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체의 동일성의 논리’는 “사물은 그 자체의 토포스의 물리적 경계를 벗어날 수 없음”으로 재해석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서술 작용의 본질들 중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은유(metaphor)²¹⁾ 작용이 허용되지 않음으로서 모더니즘에서는 상징적 시스템의 개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모던이원론에서 추상성에는 플라톤의 형이상학의 영향으로 인한 사물의 실체와 인간의 의식이 분리되

18) Augustin Berque (2000). *Op. cit.* 139-146.

19) 이분법은 주체-대상, 인간-자연, 정신-육체, 형상-질료, 본질-현상, 관념-감각등과 같은 대립적 구도를 특징으로 한다.

20) The “immobile immediate limit of the envelope”, *Physics* 212a, Aristotle.

21) 예를 들자면, 언어와 같이 다른 무엇을 통하여 해당 사물을 재현/표상(represent)하는 기호(sign)들을 허용하는 것이다.

17) Augustin Berque. 김수철 (역). *Op. cit.* 11.

는 주제전이주의로서 기호의 임의성(arbitrariness)의 경향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체의 동일성의 논리’에 의해서 은유 작용이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 인하여 상징성이 결여되고 그로 인하여 표현상 중립적 추상성의 경향이라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모더니즘 건축에서 이것은 유클리드 기하학에 기반을 둔 동일한 형태적 논리를 어디에서나 반복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으로서 건물들은 그것이 속해있는 거주자를 포함한 대지의 구체적인 요소들을 포용해내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 주제로서의 대지와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모더니즘에 있어서 환경 구축은 기호의 의미(meaning of sign)를 우리의 존재의 살(flesh)로부터 분리시킴으로 인하여 인간적 주변 환경을 그들의 토포스의 고형적인 정체성에 국한된 오브제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모더니즘 건축에 있어서 이러한 축소주의적 환경 구축의 방식은 본질적으로 장소로서의 실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인간적 주변 환경으로서 진정한 장소 구축이란 투사성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사물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가 서로 연관성을 가지며 상호 연루되는 한 쌍의 관계로서 필연적으로 사물의 토포스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사물과 그 사물로부터 풍겨 나오는 공간화(Raumung)²²⁾와 존재론적으로 연결된 장소를 의미하고 있는 하이데거의 오르트(Ort) 개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²³⁾

IV. 요약 및 소결

본문에서는 인간 환경 형성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원리로서 메디앙스 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모던 이원론에서의 환경 구축의 역기능적 개념들이 무엇인지 밝혀보았다. 또한 그것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두되는 추상성의 근본적 발생 요인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요약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인간 환경 형성의 구성적 원리에 대한 고찰과 관련한 요약으로서는 그것의 근본적 현상으로서 메디앙스의 투사적 서술 구조에 주목하였다. 그는 인간과 환경사이에 작용하는 서술의 구조를 투영(projection) 작용에 의한 외재화가 아니라 투사적 관계라는 것을 규명해내고 있다. 즉, 인간의 환경에 대한 본연적 서술 작용이라는 것은 르로와-구르안이 사회적 신체 개념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는 인간의 신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외재화 작용에만 의

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상징적 체계가 물리적인 변형과 관계하는 기술적 체계의 외재화 작용과 반대로 인간의 의식(consciousness) 속으로 전개되는 내면화 작용을 통해 의미론적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 둘 서로 간에 동시적 상호 작용 하에 형성되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을 투사(trajection)라고 하였다. 현실에서 사물들은 이러한 인간의 의식과 신체의 상호 투사 작용의 산물인 것이며 그로인하여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물들이 우리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우리의 신체로 충만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재현만도 아니며 또한 순전히 객관적인 것만도 아닌 것이다.

의식과 사물 사이의 투사의 논리는 다시 인간 존재와 환경의 관계로 확장된다. 베르크는 메디앙스(mediance)의 개념에서 본원적 의미의 인간적 구축 환경이라는 것을 인간 존재의 개별자적 측면과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측면과의 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에서와 같이 이 둘 역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본래 와츠키의 현존재의 ‘이중구조’ 이론인 풍토성(fudōsei)의 개념에서 착안된 것으로서, 여기서는 인간 존재의 상호 투사적 관계를 ‘인간 현존재의 구조적인 계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이 뜻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존재의 반은 우리의 동물적 신체 안에 함께 있고, 동시에 존재의 나머지 반은 -인간의 주변환경(milieu/fudō), 즉 매개적 신체(medial body)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환경으로 또는 환경에서부터 투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베르크의 이론에는 인류발생의 실증적 진화론과 관념적 존재론을 공존시키는 가운데 이들 서로 간의 상보관계를 설정하는 논리적 구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는 르로와-구르안의 사회적 신체 개념의 비판을 통하여 상징적 시스템에는 인간 의식의 개입에 의한 내향성이 작용함을 입증함으로써 존재론의 개입의 필연성을 논증하고 있다.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개념에서 착안된 와츠키의 이중구조 이론에는 존재론의 자체적 논리 안에서 규명할 수 없는 외향성의 출처에 관한 문제가 존재한다. 베르크는 르로와-구르안의 신체성을 중심으로 한 외재성의 논리에서 그러한 ‘바깥’의 논리적 근원에 대한 해답을 찾으므로써 와츠키의 논리적 딜레마를 보완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적인 동시에 비실제적인 것의 투사적 조합으로서의 현실에 관계되는 근원적인 인간의 조건들이다.

두 번째로, 근대성에 있어서 추상성의 발생요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모던이원론과 그로인해 파생되는 주제전이주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모던 이원론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 중에 하나는 의식과 사물 사이에 긴밀한 연관 관계가 성립하지 못하고 서로간의 단절적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물들은 그것이 소유하고 있는 적절한 의미가 결여된 채로 각각 분리된 개별적 오브제들로서 서로에게 무심한 채로 서 있을 뿐이다. 그러한 원인은 환경 위에 인간 주체의 순전한 상징적인 투영작용에 있으며 그

22) 공간화(Räumung)은 하이데거의 용어로서 오브제의 경계로부터 전개되는 온전한 공간적 현상으로서 오브제의 물리적 경계부에 형성되는 현상일 수 없고 비환원적인 고유한 공간 현상을 의미한다.

23) 반면에 모던 이원론적 장소적 성질은 하이데거의 슈텔(Stelle)이라는 용어와 관련지을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나 위치할 수 있는 오브제의 물리적 자리매김(location)을 뜻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것은 플라톤의 형이상학에서 출발하여 데카르트의 코기토로 이어져 내려오는 모더니즘의 전통에서부터 유래한다. 근대성에 내재한 이러한 관념적 아이디어의 세계를 모방하여 지상에 이식하는 형식의 수직적인 위계 구조의 패러다임에 의한 일방향성 작용이 환경 위에 인간 주체의 순전한 상징적(관념적) 투영을 조장하여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물과 마음 사이의 순전히 환영적인 연관 관계를 형성시키는 기호의 임의성(무작위성)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물들은 그 자체만의 적절한 의미의 표출이 결여된 상황 하에서, 기호의 작용으로서 지시적 의미(signification)는 결국 떠돌아다니는 기표(signifier, 기호표현)들의 순수한 유희에 그치고 마는 한계를 보인다. 인간 주체와 사물의 실체 사이의 이러한 존재론적 단절의 현상을 주체전이 주의(metabasis)라고 하며, 모더니즘 건축에서는 하나의 건물에 관련한 윤리적이고 생태적인 기반들의 의미론적 연결고리의 상관관계가 무시됨으로 인하여 형태상의 임의성이 유발되고 있다.

모던 이론론에 있어서 이러한 단절적 성향을 유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순수한 토포스에만 기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이러한 100% 토포스의 논리는 하나의 단일한 서술에만 의존하는 구성 논리로서 메타포에 의한 의미적 표현이 결여된다.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여 모더니즘 건축에서 건물들은 어디서나 유사한 기하학적 형태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순수한 서술에 의한 100% 토포스의 논리는 주체로서 대지적 요소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써 순수한 인공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결과 건축을 포함한 사물에서는 표현상 구상적 요소가 배제된 중립적 추상성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기호의 임의성에 의한 주체전이주의와 상징성의 결여에 의한 중립적 추상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모더니즘적 추상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모던 건축에서 유클리드 기하학에 기반을 둔 형태의 논리를 어느 장소에서나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근대성에 기반한 방법론은 투사적인 연결 관계상에 놓여있는 세계(predicate, kosmos)와 대지(subject, hupokeimenon) 둘 사이를 단절시킴으로써 의미의 토대로서의 환경 구축이 불가능 하게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모더니즘적 추상성은 기호의 의미를 우리의 '존재의 삶'로부터 분리시킴으로 인하여 환경 구축의 본질적 측면에 있어서 장소성 구축에 부적합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건축은 필연적으로 생태적 환경을 바탕으로 하는 상징들과 기술들, 그리고 신체성을 통해서 서술되는 현실 그 자체(r=S/P)로서 메디앙스 구조를 고려하여 건축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차후에 진행되어야 할 두 가지

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소결을 맺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메디앙스의 장소적 개념 구축의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메디앙스는 궁극적으로 사물과 의식의 두 양극을 투사적으로 조합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동시에 그러한 활동의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간과 그들의 건조 환경(built environment)을 관계 맺어주는 가운데 장소를 구성하는 개념적 원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메디앙스 이론에는 장소 구축을 지향하는 공간적 개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각에서 건물은 인간 존재와 분리될 수 없는 유기적 구성관계로서의 메디앙스에 의하여 그들만의 존재성과 결부된 고유한 장소적 환경을 형성하는 단위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환경을 포함한 사회적 측면으로 구성된 매개적 신체(medial body), 즉 주변 환경(milieu)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주변 환경(milieu)매개적 신체(medial body) 개념의 건축적 해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메디앙스를 건축적 측면에서 장소적 개념으로 정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결의 두 번째 사항으로서, 환경 구축의 실행적인 차원에서 메디앙스 이론의 적용상에서 발견되는 투사적 구조의 구성상 결여된 부분에 대한 개념적 보완의 필요성이다. 실제적인 투사적 프로세스의 실행에서는 생태적 기반위에 기술적이고 상징적인 시스템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유발시키는 중간자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 인간 주체에 의한 실제적인 투사 작용은 인간의 의식과 신체 그 둘 사이에 직접적 교류 작용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향으로의 운동을 유발시키는 촉매적 요소가 중간에 작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촉매적 요소는 인간의 의식과 신체 사이에 '매개적 공간'(median void)과 거기에 개입하여 작용하는 컨셉(concept)이라는 요소들로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며 이들 각각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먼저, 메디앙스에서 작동의 핵심적 요소로서 매개적 공간(median void)에 대한 정의로서, 이것은 인간의 신체와 의식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발되는 중간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메디앙스에서 존재의 공간성이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별자적 존재와 공동의 매개적 신체 사이를 이어주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매개적 공간에 작용하는 컨셉(concept)의 본연의 기능은 사회적 신체 개념 내에서 상징적 체계와 기술적 체계 사이의 투사적 변환을 위한 사고의 여과 장치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다. 그것은 상징적 체계의 미학적 가치와 기술적 체계의 논리성을 그 근본적 속성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근본적으로 매개적 신체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으로서 생태 지향적 이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와 동시에, 매개적 신체는 본질적으로 타인과 공유하는 것이므로 그들 사이의 공통의 토대를 지향하는 상

호주체성을 그 근본 속성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컨셉은 필연적으로 인간들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²⁴⁾ 환경 구축의 실행 측면에서 이러한 요소들의 보충은 메디앙스가 지니고 있는 복합성의 구현의 능력을 증대시켜 장소가 가지고 있는 다층적 의미 구현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V. 결 론

인간적 환경 구축에 있어서 현실은 메디앙스의 서술 구조에서와 같이 주체로서 대지(Earth)와 서술로서 세계(World)와의 균형의 필요성이다. 대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인간의 주거는 장소적 의미 구축을 위한 공동의 토대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근대성에는 주제전이주의가 둘 사이의 이러한 필요한 균형을 상실시키는 방향으로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환경 구축 상에서 장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지(Earth)와 세계(World)와의 장소적 균형의 상실의 문제는 모더니즘의 경우 상징적 기호의 임의적 투영 작용으로서 주제전이주의, 상징성으로서 메타퍼(metaphor, 은유) 논리의 결여로 인한 표현적 측면에서 인공성과 중립적 추상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추상성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모더니즘에서 이것은 외폐현상으로 인한 인간 존재(의식)와 사물(주변 환경, milieu) 사이를 단절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건축에서는 어디서나 같은 기하학적 구성 형식의 논리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임으로 인하여 건물들은 그것이 속해있는 대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반영해 낼 수 없음을 앞에서 살펴 보았다. 못하는 것이다. 모더니즘적 추상의 건축은 이러한 방식으로 주체로서의 대지와 관계를 분리시킴으로 인하여 공동의 토대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반면에, 모더니즘의 확일성과 장소성 문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동적으로 태동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서도 아이러니컬하게 주제전이주의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그것은 아무런 형태의 건물이 어디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지어지는 경향을 보임으로 인하여 대지와 상관은 사라짐으로써 공동적 토대의 조성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은 주체(대지)와 상관없는 이질적 기호의 임의적이고 무작위적 차용으로 인하여 장소적 차원의 의미

작용에 있어서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이러한 현상은 주제전이주의가 토포스 위주의 서술에 편향되는데 그 일차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서술은 필연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속성을 수반하고 있는데, 현대에서 건축은 점점 더 이러한 토포스 위주의 서술적 유형을 따름으로 인하여 상업주의 논리에 바탕을 둔 광고적 기념비성이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문제는 모든 건물이 기념비성을 표출하게 될 경우에는 대비를 통한 의미 작용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이다.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문제성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주체(대지)와 서술(세계) 사이의 필요한 균형을 상실시킴으로 인하여 공동의 토대 형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존재하는 형태 차용적 임의성의 현상으로서 주제전이주의 문제의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장소적 개념 구축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려 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김형효 (1996). 메를로 뽕띠와 애매성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
2. 마르틴 하이데거 (1986). 시간과 존재. 서울: 청하.
3. 오귀스탱 베르케. 김수철 (역), (2006). 생명사상과 지구적 살림 운동: 죽음을 향한 존재, 생을 향한 존재, 그리고 지구. 미출판 자료.
4. BERQUE, A. (2000). *Écumène: introduction à l'étude des milieux humains*. Paris: Belin.
5. BERQUE, A. (2000). *Médiance: de milieux en paysage*. Paris: Belin.
6. BERQUE, A. (2005). *The ontological structure of Mediance as a ground of meaning in architecture*. In ATKIN, T. & RYKWERT, J. (Eds.), *Structure and meaning in human settlements*. (pp. 97-105).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of archeology and anthropology.
7. HEIDEGGER, M. (1962), *Chemins qui ne mènent nulle part*, Paris: Gallimard.
8. LEROI-GOURHAN, A. (1964). *La Geste et la parole*, 2 vols, Paris: Albin Michel.

접수일(2010. 7. 24)

수정일(2010. 10. 1)

게재확정일자(2010. 10. 18)

24) 상호주체성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김형효(1996). 메를로 뽕띠와 애매성의 철학. 서울: 철학과 현실, 207-221.